

RI동정

제2차 원자력진흥사업에 1조8천억 투입

-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의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 -

과학기술부는 오는 2002년부터 5년동안 추진할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을 작성,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6월말 원자력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계획은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의 육성시책과 함께 신형핵연료 및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 등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개발, 제4세대 원자로국제 공동개발 등 미래에 대비한 기술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

시안에 따르면 첨단 방사성연구센터를 설립, 생명과학과 농학, 환경 분야의 방사선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의 비중을 과거 10%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저준위(방사선량이 적은 것) 폐기물 처분시설을 오는 2008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을 오는 2016년까지 각각 건설하고 원자력 기술과 기자재의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2차 계획기간에는 1차계획(1997년부터 2001년까지)보다 40% 늘어난 1조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등 국가의 전반적인 원자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법에 따라 5년마다 새롭게 수립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에 수립되는 2차 계획은 1차 계획의 실적을 평가하고 미국 등 세계 원자력 시장과 정책의 변화,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 국내외의 원자력 환경을 반영해 수립했다"고 말했다.

목 차

RI동정

- 제2차 원자력진흥사업에 1조8천억 투입
- 방사성동위원소 분실
- 국립암센터
- 원자력코너 새단장 공개
-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유지 정원서제출

협약소식

- 방사성동위원소 진흥에 관한 워크샵 개최
- 분야별 회원사 간담회 개최
- 위촉장 수여식

유관기관동정

- 서울중앙병원
- 대한핵의학기술학회
- 상오변경 및 사무실 이전

해외동정

- 동아시아 원자력 전망

책자소개

공금증

알림판

제4차 동위원소 국제학술회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실

포항종합제철 광양제철소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내장된 방사선 레벨 측정기의 선원봉치가 분실되었다. 광양제철소는 6월9일 설비점검도중 제강투입부 원료 레벨측정에 사용하는 방사선레벨측정기에서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선원봉치가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고 11일 과학기술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과거부는 이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김세중)의 전문가 등을 현장에 파견,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분실된 선원봉치는 철강을 만들 때 필요한 부재료(석회석 망간 등)의 양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방사선레벨측정기에 내장돼 있으며 직경 3~5cm, 길이 10cm의 원통형 스테인리스 물질이다. 이 선원봉치는 방사성 물질로 직경 3mm, 길이 3mm 크기인 밀봉형 코발트60(용량 20mCi)을 둘러싸고 있다.

국립암센터

- 일산에 500병상 규모로 개원 -



▲ 사진설명 : 20일 김대중 대통령 내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립암센터 개원식에서 박재갑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암 연구와 진료 전문기관인 국립 암센터(원장 박재갑)가 6월 20일 오후 개원식을 가졌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 정발산 공원 1만 3000여평 부지에 500병상 규모로 신설된 암센터는 암역학, 특수암, 핵의학 등 5개 분야 142명의 전문연구 인력들이 암의 진단과 치료 등 체계적인 연구로 세계 최고수준의 암전문 연구기관을 지향하게 된다.

암센터는 위암·간암·폐암·대장암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을 위주로 10개 진료센터를 두어 암환

자를 치료하게 된다. 또 유전체 연구 등 신기술 개발은 물론 암 예방·등록·조사통계·조기검진 등 국가 암관리 사업도 담당한다.

암센터는 "세계적인 암치료기관인 미국 텍사스의대 MD앤더슨 병원의 홍부중앙내과 교수 이진

수(51) 박사가 오는 9월부터 폐암센터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삼성그룹 이건의 회장을 치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센터는 양전자단층촬영기(PET), 강도조절방사선치료기(IMRT), 컴퓨터단층 모의치료기(CT-Simulator)등 최신 진단·치료장비와 의료영상 저장 전송장치(PACS) 등 효율적인 진료전달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암센터는 암치료 환자의 급증에 따라 작년 10월에 부분적으로 가개원, 지금까지 입원 9178명, 외래환자 4638명의 암환자를 진료했다.

원자력코너 새단장 공개

국립서울과학관(관장 이상철)은 참가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물로 원자력코너를 새 단장했다. 새로 설치된 전시품은 16점으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돼 '원자력 발전의 원리', '방사선의 평화적 이용' 등 원자력 안정성 이해 분야와 '우리나라원자력 발전 현황', '에너지 이용의 역사' 등 원자력현황 분야로 구성돼있다.

특히,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원자력 관련지식을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핸들을 돌려서 전등이 밝혀지는 '핸들 발전기', 원자력 기초상식을 알아보는 '컴퓨터 퀴즈' 등 체험형 전시품 위주로 공간을 구성했다. (02)762-5205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유치 청원서제출

전남 영광군 주민 2만5천여명이 6월11일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유치 청원서를 영광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의회 심의 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곳곳에서 지역이 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처럼 듣는 신선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는 1986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부지 선정 사업에 착수한 이래 지금까지 10여년을 끌어왔다. 90년 9월 안면도를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시위로 이듬해 선정안을 철회했으며 95년엔 굴업도를 시설지구로 지정고시 했다가 지질조사 결과 활성단층이 확인돼 이를 백지화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급기야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46개 임해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치 공모에 들어가 지난 2월 접수를 마감했으나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 공모 시한을 4개월 연장했다.